

‘필화’의 우울한 의미

서광선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연세대학의 마광수 교수가 쓴 소설이 문제가 되어, 본인은 물론 출판사 사장까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울해져서 서가를 훑어보았더니, 1989년에 출판된 「한국문학 필화 작품집」이란 책이 눈에 띄었다. ‘반공법, 국가모독죄, 긴급조치법 등의 혐의에 연루돼 수배, 체포, 투옥, 고문당해야 했던 이 땅의 작가 15명의 최대화제작 총망라!’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책이다. 김지하의 「오적」이나 「비어」는 말할 것도 없이, 한수산이 일본으로 ‘망명’ 갈 수밖에 없이 되었던 문제의 연재소설 「욕망의 거리」, 한승현의 법률적 수필 「어떤 조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70년대와 80년대의 암울했던 시대에 그래도 한가닥 빛이 되어 주었던 글들을 다시 대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글들을 숨어서 몰래 쉬쉬해 가며 읽었고 복사까지 해가지고 돌려보면서 좋아했고 무서워했고 희망도 가져보고 좌절하기도 했다. 글을 가두고 작품과 작가를 감옥에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힘주어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마광수 교수의 구속은 ‘필화사건’인가? 넓은 의미로 ‘필화’라는 말을 정의한다면 마교수사건 역시 필화사건임에 틀림없다. 양주동 감수의 「새국어대사전」(1976년판)에는 “글을 잘못 쓰고 받는 화”라고 정의하고, 영어로는 “serious slip of the pen”이라고 한다. 나는 이 정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잘못 쓰고’가 문제이다. 누구의 판단인가. 차라리 “글 쓴 것으로 받는 화”, 그리고 좀더 좁힌다면 “글 쓴 것으로 받는 사법적 화”로 고쳐 써야 할 것 같다. 마광수 교수의 글들은 70년대와 80년대에서처럼 정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화’라고 할 수 없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마교수와 70년대의 우리의 문화적 우상들을 비교하지 말라고 소리지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법률을 가지고 도덕적인 선입견과 편견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한사람의 글과 작품을 재판하고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역시 ‘필화’이며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과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으로 예술적 감각과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진행된다. 문학비판과 평론은 스스로 제정되고 인정된 평가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진행되고, 그 평론에 의해서 우열이 가려지고, 좋고 나쁜, 예술성이 있고 없고, 문학성이 있고 없고를 가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글과 문학이 도덕적으로 옳으나 그르나 하는 문제는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된다. 그러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술을 재는 자가 따로 있고 도덕을 재는 자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덕을 가르친다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덕을 가르친다고 그 문학을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안됐지만(김지하의 경우)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 문학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마광수의 경우) 옳지 않은 일인 것이다.

글과 문학과 예술작품이 필화사건으로 연루되는 사회는 선진사회가 되기 어렵고 문명사회로 가기가 힘들 것이다. 법과 공권력이 문학을 승화시킨 역사는 자고로 없다. 오로지 글쓰는 이들과 글읽는 이들이 글을 정화시키고 다듬고 아름답고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어왔을 뿐이다.

|출판|제|널|

1992년 12월 5일 제118호
격주간·매월 5, 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뉴스 2 올 한해 무실적출판사 61%·외

에세이 4 책장 넘기듯 가는 세월의 흐름 – 이상섭

저무는 임신년 마지막날의 서재단상

송년특집 6 출판문화 도약 이를 ‘책의 해’ 선정

7 시장개방, 과연 위기인가 기회인가

8 한국출판의 아킬레스건 ‘도서유통구조’

9 비로소 핵심과제로 부각한 전자출판

10 도서관정책 내실화 가능성 보인다

11 정보화 흐름 적극대응하는 출판행정

12 베스트셀러를 통해본 서점가 동향

13 뜨겁게 재연된 출판물 외설공방

서평 14 신형식 「백제사」 – 양기석

소홍렬 「자연주의적 유신론」 – 김영정

15 이주영 「서양의 역사」 – 최영보

로즈레빈 「인류의 진화와 기원」 – 유명기

16 요하네스 헤센 「가치론」 – 이길우

동남아연구회 「동남아정치와 사회」 – 이우진

17 정효구 「상상력의 모험」 – 김춘식

유순하 「다섯번째 화살」 – 이동하

현장취재 18 독자들 시선 끄는 서점 특설코너

도서진열 이벤트화한 적극적 판매방식

출판화제 20 역사의 심연에서 길어낸 문화의 암금

동아출판사 「한국문화상징사전」

21 재미와 연구 결합한 ‘한국사만인보’

동아일보사 「근대인물한국사」

시론 22 정치인 자서전의 진실과 허구 – 김광웅

사실기록 소홀해 경험의 진가 전달못해

리포트 24 우리의 서점현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4차 지역서적상 간담회

청소년도서 26 이 달의 청소년도서

세계의 책 28 영화사의 명작 ‘카사블랑카’ 뒷이야기 – 배병삼

30 독자서평

32 화제의 신간

34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한상균